법화종 대표종찰 안정사 '탈종 시도' 논란

자격 박탈된 주지가 일간지에 '탈종공고'

총무원, 통영시청 통해 인지
안정사 담보 대출 시도 확인
'해종행위' 규정해 전격대응
재적승위원회 전원 징계절차
일부 스님, "모르는 일" 소명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권한없는 이들이 일간지에 안정사 탈종공고를 게재해 파장이 거세다. 사진은 안정사 전경.

법화종 대표종찰이자 천년고찰 안정사를 자격없는 자들이 탈종시키려 한 시도가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승적 도용으로 주지권한을 상실한 호암 스님(김연기)이 한겨레 9월 3일자 신문에 게재한 '탈종공고'가 뒤늦게 확인된데 따른 것이다.

해당공고에서 호암 스님은 "안정사 재적승운영위원회 회의를 거쳤다"고 밝혔지만, '안정사재적승운영위원회' 역시 종단 공찰을 탈종시킬 권한이 없다는 점에서 현행법상 공고의 효력은 전무하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특히 이를 인지한 총무원측이 '안정사재적승운영위원회' 구성원에 대한 징계절차에 착수하자 일부 소속 스님들이 "모르는 일"이라며 소명함에 따라, 일부 주도세력에 의한 탈종시도일 가능성이 높아 파장이 거세다.

법화종 총무원(원장서리 혜문)은 지난해 12월 '안정사 탈종공고'를 확인하고 종단 주요소임자와 종도들에게 긴급 공문을 발송하는 등 즉각 대처에 나섰다. 해당 공고는 9월 3일 한겨레신문 내지의 명함판 크기로 게재됐다. 내용은 "상기사찰은 대한불교법화종의 종지종풍을 봉대할 수 없어 안정사재적승운영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불기 2565(2021)년 9월 3일부로 탈종함을 공고합니다"이며, 공고 게재주체는 '안정사 주지(대표자) 호암(김연기)'로 기재됐다. 호암 스님은 승적도용으로 종도자격이 박탈되면서 주지임명이 원천무효화된 바 있으며, 재적승운영위원회는 이미 치탈도첩의 징계가 결정된 승헌·거암 스님이 주도하는 조직으로 확인됐다.

법적으로 권한 없는 자들의 탈종공고로 효력이 없다는 판단이다. 호암 스님의 주지임명 자체가 이미 무효인데다, 거암·승헌 스님 등 안정사재적승위원회 소속 구성원들의 결격사유가 명확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특히 전통사찰이자 종단 공찰의 탈종절차가 단순 공고만으로 효력을 가지는 경우는 전무하다는 게 법률전문가들의 견해다. 판례 역시 자격없는 자들의 전통사찰의 탈종공고는 사찰의 탈종이 아닌 개인의 탈종으로 결정한 바 있다.

이에 총무원측은 공문을 통해 "해종세력인 이재열(승헌 스님)과 임채곤(거암 스님) 외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원들이 안정사 탈종공고를 게재하는 등 참담한 일을 도모하고 있다"며 "통영시청으로부터 안정사를 담보로 한 대출까지 시도한 정황이 확인되면서 종단 혼란을 틈타 대표종찰인 안정사를 종단에서 탈종시켜 사유화하려는 행위를 묵과할 수 없다. 현재 안정사재적승위원회 구성원에 대한 치탈도첩의 징계를 공고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해당 탈종공고가 위원회 회의조차 거치지 않은 정황도 드러났다. 징계대상인 일부 재적승이 "주지라는 호암 스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관련 회의가 있었던 적도 없다"는 취지로 소명을 밝힌데 따른 것이다.

총무원은 "종찰 안정사를 담보로 사익을 추구하기 위해 일부개인들이 탈종을 시도한 정황이 확인된 만큼 종단 내부절차는 물론, 모든 법적 대응을 통해 바로잡을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월운 스님 "계정혜 삼학 닦고 자비실천을"

전통불교태고종 1월6일 신년하례
전통불교태고종 현판식도 본산서


전통불교태고종은 1월 6일 총본산 원효사에서 신년하례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모인 사부대중은 종단 총무원 현판을 제막하며 종단 발전과 불교 중흥의 원력을 세웠다.

전통불교태고종(총무원장 월운)은 1월 6일 총본산 경기도 남양주 원효사에서 종단 신년하례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신년하례법회에는 총무원장 월운 스님을 비롯해 감곡 만봉정사 혜봉 스님, 천안 미타사 지휴 스님, 성봉 스님, 인천 해음사 월해 스님, 대전 능심사 덕운 스님, 양평 관음사 법성 스님, 남원 수월사 진석 스님, 서울 가야선원 혜정 스님, 양주 율림원 선묵 스님, 장흥 성불사 도암 스님, 동두천 진명사 보일 법사 외 원효사 신도회 총회장 감로행 보살 등 사부대중 100여명이 참석했다.

법회는 혜경 스님의 집전으로 삼귀의와 반야심경 봉독, 상축, 혜봉 스님 환영사, 총무원장 월운 스님 인사말, 종도간 상견례, 사홍서원 순으로 진행됐다.

법회에서 총무원장 월운 스님은 "남에게 피해주지 말고, 서로 도와주는 자비의 삶 속에서 부처님 지혜가 떠오른다"며 "코로나19로 무섭다고 움츠려들지만 말고 계정혜 삼학을 잘 닦고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드는데 함께 나서자"고 강조했다.

이어 월운 스님은 "공부라는 것은 젊으나 나이가 드나 꾸준히 계속해야 된다. 아직까지도 배움에 대해 갈증을 느낀다"고 정진의 중요성을 설하며 "새롭게 출발하는 만큼 승속을 떠나 종단 발전을 위해 다 함께 마음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신년하례법회 후에는 전통불교태고종 현판식도 거행됐다.

한편, 남양주 별내면에 위치한 원효사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이웃을 위한 자비나눔에 앞장서고 있다. 2021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북부희망케어센터 등에 자비의쌀 300kg을 전달하는 등 매년 지역 소외계층을 위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남양주=노덕현 기자

통영 용화사 인재불사 및 소외계층 돕기 앞장

1월 3일 장학금 및 기금 전달식
대학생 5명에 500만원 전달
등달기, 음악회로 기금 마련



용화사 주지 종묵 스님(사진왼쪽 두번째)이 불우이웃돕기기금을 전달하고 있다.

통영 용화사(주지 종묵)는 1월 3일 임인년 새해 장학금 전달식과 불우이웃돕기 자비나눔쌀 전달식을 경내 큰 법당에서 회향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통영 용화사 주지 종묵 스님 외 스님들과 김순자 신도회장, 김혜란 통영시 주민복지문화과장 등 통영시복지관계자, 신도회 일동이 참석했다.

장학금은 용화사 종목 스님과 독지가 신도의 정성으로 마련된 것으로 대학생 5명에게 〈불교성전〉과 함께 100만 원 씩 총 500만 원이 전달됐다.

영남대 김용환, 이화여대 하현주, 동서대 박태현, 부산대 문희영, 한국해양대 여지석 등 5명의 학생이 수혜를 받았으며, 선발된 학생들은 용화사, 도솔암, 관음암과 신도들이 추천한 인재다.

또 불우이웃돕기 기금마련 산사음악회와 소망등 달기 및 제야의 타종식으로 마련된 기금 500만 원과 백미 10kg 100포가 전달식에 참여한 김혜란 과장을 통해 강석주 통영시장에게 전달됐다.

이번 장학금, 성금, 물품은 총 1300만원 상당으로 물품은 저소득층 100가구에 전달 예정이다. 성금은 통영시와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 및 맞춤형 복지서비스로 지정기탁될 예정이다.

통영 용화사는 2017년부터 5회째 매년 스님과 신도회에서 새해맞이 소망 등 달기 및 제야의 타종식 행사를 통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자비행을 실천하고 있다.

종묵 스님은 이날 "뜻깊은 불우이웃돕기 동참에 감사드리며 사회가 함께 밝아지고 희망찬 임인년이 되었으면 한다"며 "코로나도 하루 빨리 종식되길 기원한다. 새해 소망 등달기에서 보여준 불자들의 정성이 각 가정과 이웃에게 전해져서 어려움이 없어지고 소통하고 어울림 있는 사회가 되길 발원한다"고 말했다.

강석주 통영시장은 "2022년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여 이웃에 사랑과 자비 나눔으로 실천하시는 용화사 종묵 스님과 신도들의 정성에 깊이 감사를 표한다"며 "올해도 소외된 이웃이 없는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성주사 일주문 준공기념식에서 참석대중들이 일주문 현판을 제막하고 있다.

불모산 성주사, 일주문 세워지다

창원 불모산 성주사 일주문 준공기념 제막식 개최

전체 사업비 3억 6000만원
2019년부터 불사 노력 결실
법안 스님 "새해 원력 쌓자"

창원 불모산에서 불법 홍포를 이어가는 성주사의 도량불사 상징인 일주문이 준공됐다. 창원 성주사(주지 법안)는 1월 3일 성주사에서 일주문 준공기념 제막식을 개최했다.

이날 제막식에는 주지 법안 스님을 비롯한 성주사 대중 스님들과 허성무 창원시장, 이종엽 경남여성특별보좌관, 황규종 의창구청장, 김이순 신도회장 등이 참석했다.

행사는 삼귀의, 반야심경에 이어 경과보고, 주지 법안 스님 인사말, 축사, 사홍서원, 떡케익 커팅식, 제막식, 기념촬영, 폐회로 진행됐다.

이날 법안 스님은 "2019년 5월 소임 시작하고부터 산문을 표시하는 일주문 조성 필요성을 느꼈다. 경남도에 건의해 창원시청에서 검토하여 불사가 시작됐다"며 "일주문은 산문의 경계선으로 기둥이 하나라는 뜻이다. 일주문 안에는 부처님이 상주하는 세계이므로 세상과의 경계 표시"라고 말했다.

이어 스님은 "평소 일상생활 속에서 마음의 번뇌가 있을시 산문의 일주문을 지나면 마음의 세속적인 일들이 정화되고 평화로 연결된다"고 의미를 설명하며 "불자들이 이 문을 지나며 마음이 정화되고 평화로워지길 바란다. 부처님 친견한 마음을 간직하고 세상사에 법향을 갖고 원력과 장엄으로 함께 하자"고 설했다.

경과보고에서는 전체 사업과정이 소개됐다. 성주사 일주문은 사업비 3억 6000만원으로 폭 4.86m, 높이 8m 가포식 팔작지붕으로 만들어 졌다. 2021년 10월 13일 불사가 본격 진행, 구탑 12일 목공공사 완료 후 구탑 15일 지붕기와 공사가 완료됐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성주사가 일주문 불사로 광명도량으로 거듭나, 어두운 세상을 밝혀 등불의 세계로 나아가는 관문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일주문 제막식 직전 성주사에서는 조실 서해 흥교 스님의 대종사 품수 기념법회도 진행됐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안동청소년문화센터, '최우수' 청소년수련



(재)고운청소년재단에서 운영지원하는 안동청소년문화센터가 여성가족부에서 실시하는 '2021년 전국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결과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는 '청소년활동진흥법'을 근거로 2년마다 여성가족부가 주최하고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주관하는 평가다. 전국 500여 개 시설을 대상으로 한 평가에서 안동청소년문화센터는 운영과 관리, 안전과 환경 등 평가항목 모두 호평을 받았다.

또 코로나 상황을 감안한 종합안전위생 점검에서도 A등급을 받아 경상북도 생활권 청소년수련시설 31곳 중 최우수 등급을 부여받았다.

전국 500여 개의 생활권 청소년수련시설 중 안동청소년문화센터를 포함한 민간 시설은 5곳 밖에 없다.

김성동 안동청소년문화센터장은 "이번 결과는 안동시의 다양한 지원과 관심, 지역민의 응원으로 낳은 결과"라며 "양질의 프로그램과 안전한 시설 제공으로 청소년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박영애 영주지국장

불교종립 정광고등학교 수계법회



미래 꿈나무들의 수계법회가 열렸다. 광주 불교종립 정광학원(이사장 덕문, 화엄사 주지)은 구탑 27일 정광고등학교 룸비니 체육관에서 '부처님의 자비정신으로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수계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수계법회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원격수업으로 수계법회에 참여할 수 없게 된 고3 학생들을 제외한 학생 261명과 교직원 31명이 참여했다.

계사로 나선 화엄사 주지 덕문 스님과 화엄사 대중스님들은 삼귀의계와 오계에 대한 설명과 연비를 진행하며 부처님 제자로서 살아갈 것을 당부했다.

덕문 스님은 "삼귀의계와 오계는 불자로써 당연히 지켜야 할 생활 규범이며, '하지 말라'는 규제가 아닌 '좀 더 긍정적인 생각'을 통해 삶을 청정하게 하는 규범"이라고 강조했다.

행사는 삼귀의, 반야심경 봉독과 청성, 청사, 개도, 참회, 연비, 삼귀의, 선계상, 계청수여, 정근이 이어졌다. 이어 참석한 학생들을 위한 문화상품권, 여수 디오션 리조트 이용권 경품추첨도 진행됐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자비신행회 광주 명예의 전당 헌액



광주 대표적 신행단체인 사단법인 자비신행회(이사장 이화영)가 2021년 광주광역시 명예의 전당에 헌액됐다.

광주광역시는 구탑 29일 시청 메인홀에서 '광주광역시 명예의 헌액식'을 개최했다.

헌액은 나눔과 기부, 자원봉사에 탁월한 업적을 통해 지역사회 공헌한 이들에게 시상하는 것으로 올해에는 자비신행회가 유일하게 단체수상했다.

자비신행회는 1999년 설립된 이후 정부나 지자체의 예산지원을 받지 않고 회원들의 회비와 자원봉사자들의 봉사활동만으로 활동하고 있다. 청소년·청년·어르신 먹거리지원, 쪽방촌 난방지원, 코로나19 방역기관 응원프로젝트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발굴해 추진하며 나눔공동체를 만드는데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자비신행회 김삼옥 상임이사는 "저희 회원들이나 봉사자들이 자비신행회에서 하는 다양한 사업에 기부를 하는 것을 행복해 한다. 저도 마찬가지로 활동을 하면서 행복하기 때문에 지금껏 활동을 하고 있다"고 말하며 "일반인들이 봉사와 기부를 어렵게 생각하는데 본인이 즐겁고 행복해 지고 싶으면 동참해 달라고 말하고 싶다"고 적극적 기부 참여를 권했다.

헌액식은 이용섭 시장, 조석호 광주광역시의회 부의장, 헌액대상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과보고, 헌액 현수막 제막, 헌액대상자 활동영상 상영, 헌액인증패 수여, 명예의전당 라운딩 등으로 진행됐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